| 국어는 이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파이널Ⅱ 제6차 예비평가 정답과 해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Ⅱ 제6차 예비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 형

공통과목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③	2	18	⑤	2	35	④	2	35	⑤	3
2	②	3	19	⑤	2	36	②	2	36	②	2
3	①	2	20	②	2	37	④	3	37	①	2
4	②	2	21	②	3	38	①	2	38	④	2
5	①	2	22	⑤	2	39	②	2	39	④	2
6	③	2	23	③	2	40	②	2	40	②	2
7	②	2	24	①	2	41	③	2	41	④	3
8	④	3	25	④	3	42	④	2	42	⑤	2
9	②	2	26	⑤	2	43	①	2	43	②	2
10	①	2	27	④	2	44	②	2	44	②	2
11	①	2	28	③	2	45	②	3	45	⑤	2
12	⑤	2	29	④	2						
13	⑤	3	30	⑤	2						
14	②	2	31	③	3						
15	③	2	32	④	2						
16	④	3	33	①	2						
17	①	2	34	③	3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Ⅱ 제6차 예비평가 해설

• 공통과목 •

[1 ~ 3] 독서론

1.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서는 독서량이 매우 적은 '비독자'와 독서량이 많은 '애독자'를 구분하고 이들의 독서량의 차이가 감동과 즐거움 등 독서의 정서적 가치를 인식하는지 여부에서 기인됨을 강조하고 있다. 그밖에도 독서의 가치에는 정보 습득 효과, 바람직한 삶을 살게 하여 삶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 등이 있다.

[오답풀이] ① 첫째 문단에 따르면 비독자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책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많다고 독서량이 많은 것은 아니다. ② 지문에 따르면 정보 습득 효과는 독서의 여러 효과 중 하나일 뿐 가장 중요한 효과라 할 수 없다. ④ 독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독서 자체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다. 즉 좋은 독서 경험을 쌓음으로써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지 독서의 목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학업을 위해서'와 같은 목적은 오히려 독서 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학업과 시험 같은 독서 외적 요소는 그것이 없어지면 더 이상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므로 자발적인 독서 습관의 형성에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없다.

2.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비독자)가 ⓑ(애독자)에 비해 '지식 또는 정보 획득'을 중요시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은 맞다. 하지만 독서를 통해 보다 다양한 지식을 얻고 있는 것은 ⓐ가 아니라 ⓑ이다. ⓐ는 학업이나 시험 등 특정 목적에 국한하여 독서하는 반면 ⓑ는 지적 욕구와 호기심이 왕성해서 다양한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와 ⓑ 모두 '지식 또는 정보 획득'을 우선시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는 양자 모두 독서의 주목적이 정보 습득에 있다는 지문의 언급과 일치한다. ③ ⓐ는 ⓑ에 비해 '만족감과 즐거움'을 목적으로 삼는 비율이 더 낮다. 이는 정서적 가치에 둔감하고 독서를 실용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④ ⓑ는 ⓐ에 비해 '지적 성장'을 택한 비율이 더 높다. 이는 독서를 통한 지적 욕구와 호기심 충족이라는 정서적 요인과 관련되므로 독서 자체가 지닌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⑤ ⓑ는 ⓐ에 비해 '만족감과 즐거움'을 목적으로 삼는 비율이 더 높다. 지문에 따르면 이는 독서 자체의 정서적 가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적극적으로 독서하는 애독자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3. [출제의도] 지문을 읽은 학생의 반응을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의 반응에서 '이러한 현상'이란 ㉠, 즉 외적 요소가 없어도 독자 스스로 독서할 동기를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 외적 요소가 없어도 스스로 독서할 동기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요인이어야 한다. 학생은 보통 수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만 책을 읽는 전형적인 비독자이므로 수행해야 할 과제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스스로 독서할 동기가 생겨나지는 않을 것이다.

[오답풀이] ② 학생이 자신의 흥미에 맞는 책을 읽고 즐거움을 느낀다면 독서 습관이 개선된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③ 학생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책을 많이 읽는 것 역시 독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이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④ 독서를 통해 지적 성장을 이루는 경험이 쌓이는 것은 비독자에서 애독자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⑤ 독서 자체가 주는 만족감을 느낄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책을 읽을 동기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4 ~ 9] 사회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18쪽

4. [출제의도] 두 지문의 서술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는 장단기 금리를 구성하는 요인 중 기간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고 그에 따라 장단기 금리 역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전통적 견해는 물가 상승 위험이, 최근 일군의 학자들은 장기 국채의 수급이 기간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본다. 마지막 문단의 다수의 학자들의 견해도 경기에 대한 예측이 기간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는 점에서 전통적 견해와 유사한 입장이다. 이 두 입장은 기간 프리미엄 변동에 따른 장단기 금리 역전을 경기 침체의 신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 장기 금리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론은 설명되고 있지만 그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소개되고 있지 않다. ③ (나)에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설명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은 나열되고 있지 않다. ④ (나)에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의 원인은 설명되고 있지만 한국의 적정한 정책 금리 수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특정 입장을 옹호하고 있지 않다.

5.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입장들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장기 국채의 수요가 급증하여 장기 국채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간 프리미엄이 크게 떨어질 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이에 따르면 장단기 금리 역전은 정책 금리 조정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은 시장이 경기 침체를 예상한 경우 그것이 미래의 단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에 반영되거나 아니면 장기 국채에 대한 시장의 수요 증가에 따라 기간 프리미엄이 크게 떨어지거나, 즉 두 가지 경로 중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경기 침체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③ ㉠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장기 국채 수급에 따른 기간 프리미엄 변동에 의한 것이라면 경기 침체의 신호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반면 ㉡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④ ㉠이 정부의 양적 완화로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기간 프리미엄이 낮아진다고 본 반면 ㉡은 양적 완화 여부와 무관하게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 자체가 장기 국채의 수요에 영향을 미쳐 기간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다고 본다. ⑤ ㉠은 정부의 양적 완화에 따른 국채의 수급이, ㉡은 미래의 경기 침체에 대한 예측에 따른 장기 국채의 수급이 기간 프리미엄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6. [출제의도] 지문을 근거로 진술을 적절하게 완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중앙은행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책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책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 시장에서 미래의 기대 단기 금리가 '상승'할 것이고, 지급될 이자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채권은 물가가 지속 상승하면 수익률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지면 장기 국채를 보유하는 위험이 증가하므로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중앙은행이 채권 시장에서 양적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져서 기간 프리미엄은 '높게' 유지될 것이다.

7.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둘째 문단에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하면 신흥국은 급격한 환율 상승을 방어할 여력이 크게 줄어든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 국가의 외환 보유액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나)의 첫째 문단에 수익률이 높고 위험이 높으면 금리도 높다고 표현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투자 수익률과 투자에 따른 위험은 같은 방향으로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③ 금융 위기 이전에는 미래의 기대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컸으나, 금융 위기 이후에는 기간 프리미엄의 영향력이 더 커졌고 2018년 당시 한미 금리 동조화도 기간 프리미엄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2018년 당시와 2008년 이전의 금리 동조화가 유사한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없다. ④ 전 세계적인 저물가는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정책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⑤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금융 시장의 신뢰도의 차이가 금리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경기의 견고한 회복세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 즉 실물 경제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양국의 금리 역전이 실물 경제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8.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2018년까지 선진국 갑과 신흥국 을의 주요 경제 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지문에서 금리 동조화, 양적 완화, 정책 금리, 장기 국채, 우량 자산 등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보기>에 제시된 상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황을 파악해야 각 선지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정답풀이] 2016년에 여전히 갑의 장기 금리가 을의 장기 금리보다 높다는 점에 주목하면 을의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정책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시기에 을의 환율이 급등하지 않은 것은 을의 금융 시장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답풀이] ① 갑과 을의 금리 동조화가 2000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2008년 이전에도 금리 동조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는 미래의 기대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컸던 시기이므로 단기 금리에 대한 기대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는 양국의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기조가 유사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② 2010년에서 2012년 사이는 장기 금리 동조화에 기간 프리미엄의 영향력이 더 컸던 시기인데, 이 시기 동안 갑에서 수차례 양적 완화가 일어나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장기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③ 표에 따를 때 2014년에 갑과 을 사이에 장기 금리 역전이 발생했는데, 환율이 1,000에서 1,300으로 급등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을의 금융 시장에서 국제 투자 자본의 대규모 유출이 일어났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⑤ 2018년 갑과의 금리 역전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을의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한 금리 역전 해소를 시도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나)의 마지막 문단에 따를 때 신중론이 설득력을 얻었음을 의미하는데, 2017년 이후 을의 장기 국채가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아 환율이 안정되기 시작한 것이 이러한 신중론에 힘을 보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9. [출제의도] 한자어를 고유어로 적절하게 바꿔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확정되다'는 '일이 확실하게 정해지다.'의 의미이므로, '쌓이다'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10 ~ 13] 기술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13쪽

10.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는 형태가 동일하다. 이는 네 개의 옥텟이 점으로 구분된 형태이다.

[오답풀이] ② 같은 네트워크에서 라우터와 호스트들에는 각기 고유한 IP 주소가 할당된다. ③ 목적지 호스트까지 정보가 전송될 때에 우선 목적지 호스트가 포함된 네트워크의 라우터로 전송된다. 이때 참조되는 것은 IP 주소에서 네트워크 비트까지이다. ④ 라우터는 다른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받은 후 호스트 비트를 참조하여 목적지 호스트에 정보를 전달한다. ⑤ IP 주소에서 24개 비트까지가 네트워크 비트이면 호스트 비트는 8개 비트이다. 즉 서브넷 마스크에서 0으로 표기되는 비트는 8개이다.

11. [출제의도] 지문을 통해 특정한 기술적 상황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네트워크 주소는 해당 서브넷에 할당될 수 있는 IP 주소 중에서 가장 앞쪽 주소로, 네트워크 비트가 아닌 남은 호스트 비트가 전부 0이어야 한다. 선지의 4옥텟인 십진수 '64'는 이진수로 표현하면 '01000000'이 되는데, 네트워크 비트가 4옥텟의 두 번째 비트까지일 때 네트워크 주소가 될 수 있다. 넷째 문단 예시에서도 둘째 서브넷의 네트워크 주소가 실제로 '192.168.0.64'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옥텟에서 가장 큰 십진수는 255이므로, 3옥텟이 256일 수는 없다. ③ 각 네트워크에는 라우터가 필요하므로, 서브네팅을 할수록 네트워크의 일종인 서브넷의 수가 늘어나서 운용해야 할 라우터의 수도 그만큼 늘어난다. ④ 서브넷 마스크의 네트워크 비트 부분은 1이 나열되기 때문에, '11110000'은 가능하지만, '00001111'은 불가능하다. ⑤ IP 주소에서 네트워크 비트가 아닌 비트는 전부 호스트 비트이며, 그 자릿수에는 제한이 없다.

12.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대상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서브네팅은 직접 통신해야 할 호스트들로만 이루어진 네트워크인 '서브넷'을 만들어서 통신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하나의 네트워크에 속한 호스트끼리는 직접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브넷의 ㉠(라우터)은 호스트들에 일정 범위의 ㉡(IP 주소)을 할당할 수 있으며, 그중 가장 마지막 주소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사용된다. 브로드캐스트는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통신으로, 동일한 정보를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해당 서브넷에 속한 호스트가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정보를 전송하면 서브넷의 모든 호스트들에 한꺼번에 동일한 정보가 직접 전송되는 것이다. 이 역시 네트워크 간 통신이 아니므로 라우터의 중계는 불필요하다.

[오답풀이] ① 직접 통신해야 할 호스트들 사이에 ㉠의 중계가 없어야 통신 효율이 높아진다. 즉 서브네팅은 직접 통신해야 할 호스트들로만 이루어진 네트워크인 '서브넷'을 만드는 작업이다. ② 네트워크 간 통신 시에 목적지 호스트로 정보를 보낼 때에는 ㉠을 거쳐야 한다. 이때 해당 라우터로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서브넷 마스크를 통해 네트워크 비트가 몇 번째 비트까지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서브넷 마스크를 확인하지 않고 목적지 호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라우터로 정보를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하나의 네트워크의 호스트들에 동일한 ㉡이 할당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첫째 문단의 설명대로 IP 주소는 고유하기 때문이다. ④ 통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통신이 필요한 호스트들로만 구성된 '서브넷'을 만들어야 한다. 즉 이는 네트워크 간 통신과는 무관하다. 더욱이 ㉡의 구조에서 네트워크 비트의 자릿수를 크게 설정한다면 이는 호스트 비트의 수를 줄이는 것으로, 해당 서브넷에 속할 수 있는 호스트들의 수를 줄일 뿐이다.

13.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기존 네트워크에서 3옥텟까지는 네트워크 비트에 해당한다. 해당 네트워크를 2개의 서브넷으로 나눈다면 4옥텟의 앞쪽 1개 비트까지인 25개 비트가 네트워크 비트로 정해진다. 즉 두 서브넷의 '네트워크 주소'에서 4옥텟은 각각 '00000000', '10000000'이 된다. 이때 X에 연결된 호스트들에 더 작은 값의 IP 주소가 할당되므로, X가 포함된 첫째 서브넷이 전자의 네트워크 주소를, Y가 포함된 둘째 서브넷이 후자의 네트워크 주소를 갖는다. 두 서브넷에 할당되는 IP 주소들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각 서브넷에서 라우터나 호스트들에 할당할 수 있는 IP 주소는 최대 126개이다. 네트워크 비트를 빼고 남은 호스트 비트인 7비트의 조합, 즉 2^7에서 2개를 빼면 126이 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주소	192.168.1.0
X나 호스트들에 할당될 수 있는 주소	192.168.1.1 ~ 192.168.1.126
브로드캐스트 주소	192.168.1.127

<첫째 서브넷>

네트워크 주소	192.168.1.128
Y나 호스트들에 할당될 수 있는 주소	192.168.1.129 ~ 192.168.1.254
브로드캐스트 주소	192.168.1.255

<둘째 서브넷>

[정답풀이] Y가 포함된 둘째 서브넷에는 현재 50개의 IP 주소가 Y와 호스트들에 할당되어 있다. 해당 서브넷에는 최대 126개의 IP 주소가 할당될 수 있으므로, 추가로 76개의 호스트들이 연결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X와 Y의 네트워크 비트의 자릿수는 25개로 같다. ② X가 포함된 첫째 서브넷에는 '192.168.1.1 ~ 192.168.1.126'의 IP 주소가 할당될 수 있다. 따라서 '192.168.1.105'도 할당될 수 있다. ③ X와 Y의 서브넷 마스크는 모두 '255.255.255.128'로 정해진다. 서브넷 마스크의 4옥텟이 '10000000'인데, 이는 넷째 문단에 따르면 십진수로 '128'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트워크 비트의 자릿수가 같으면 서브넷 마스크도 반드시 같다. ④ Y가 포함된 둘째 서브넷에는 '192.168.1.129 ~ 192.168.1.254'의 IP 주소가 할당될 수 있다. 이는 4옥텟이 이진수로 '10000001'에서 '11111110'까지인 주소들에 해당한다. 첫째 서브넷에는 4옥텟의 첫째 비트가 0인 주소들이, 둘째 서브넷에는 첫째 비트가 1인 주소들이 할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4옥텟의 첫째 비트가 0인 IP 주소는 Y가 아니라 X에 할당될 것이다.

[14 ~ 17] 인문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88쪽

14.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관찰사는 자신의 심복인 비장과 영리에게 염탐을 지시했다. 암행어사 역시 심복들에게 염탐을 맡겼지만 때로는 암행어사 본인이 직접 염탐하기도 하였다.

[오답풀이] ① 지방 관리인 군현의 수령들은 중앙에서 파견한 것이지 해당 지역에서 선출한 것이 아니다. ③ 마지막 문단에 나오듯이 암행어사 제도의 한계에는 신분 노출이 포함되어 있다. 한시적으로만 활동했다고 해서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④ 국왕의 특별 지시 사항은 사목이 아니라 봉서에 적혀 있었다. 사목에는 이러한 특별 지시 외의 기준, 직무 범위의 기본 규정이 적혀 있었다. ⑤ 관찰사는 임기가 2년에 불과하여 수령을 평가할 때 심복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암행어사의 염탐에 의존한 것이 아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5. [출제의도] 지문 속 특정 상황의 등장 배경을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암행어사가 관찰사의 포폄의 공정성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관찰사의 비장이 행한 염탐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필요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그러한 염탐이 향리와의 유착 관계에 의해 사실과 다르지 않은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암행어사의 업무였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암행어사가 자신이 어떻게 염탐했는지를 먼저 서술하고 서계를 작성하였으며 또 반드시 관인이 찍힌 증거 문서를 남겨야 했던 것)은 관찰사의 심복이 향리와 결탁하는 것이 관찰사 포폄의 폐단이었으므로 암행어사의 경우에는 그런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암행어사의 심복이 감찰 지역의 향리와 결탁하지 않았음을 확실히 살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이 규정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 ② ㉠에서 염탐의 기록과 증거 문서의 확보는 관찰사와 달리 암행어사가 수행한 평가가 그 지역의 소문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에서 말하는 증거 문서는 관찰사의 포폄 보고서인 계본과 암행어사의 보고서인 서계 사이에 내용상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판단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⑤ 관찰사가 이미 포폄한 수령을 암행어사가 달리 평가할 경우 이 때문에 관찰사가 파직되기도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암행어사의 평가는 감영의 수장인 관찰사까지 파직시킬 영향력을 지닌 것이므로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자 ㉠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정조 때의 암행어사(갑)의 보고서 (가)와 관찰사(병)의 보고서 (나)가 제시되어 있다. 지문을 근거로 두 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창원부사(을)가 생읍의 관리인지 연로읍의 관리인지 여부, 정조가 병을 파직한 이유와 근거 등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풀이] 관찰사 병이 (나)와 같은 8자의 글자 수에 맞춰 함축적으로 을을 칭찬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감영의 향리 가문 출신인 영리와 을의 유착 관계와 기록 형식에 기인한 바가 큰 것이며, 병이 근무 태만을 이유로 파직을 당했다는 점에서 병에게 을의 비리를 비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을을 비호하는 것은 을이 은밀하게 친하게 지낸 감영의 영리들이다.

[오답풀이] ① 갑은 진주로 파견되었으므로 진주가 생읍이고, 창원은 그 경유 지역인 연로읍임을 알 수 있다. ② 갑은 (가)에서 병의 근무 태만에 대해 직접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을이 병의 영리 한두 명과 친하게 지내며 이들로부터 은밀하게 비호를 받고 있음을 보고한 것은 병이 근무 태만으로 이를 알고 있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조 19년(1795)에 병은 암행어사의 염탐 대상일 뿐만 아니라 평가 대상이었다. ③ (가)에 언급된 을이 나그네의 안면을 불문하고 노잣돈을 주어 자신을 칭찬하게 한 것은 병이 소문만으로 수령을 탄핵하는 권한이 있음을 알고 을이 이를 악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이 실제로 그러한 권한을 악용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병이 파직된 이유가 근무 태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암행어사인 갑이나 정조는 병이 그러한 권한을 악용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⑤ 정조가 (가)와 (나)처럼 서계와 계본의 상반된 평가를 보고 병을 파직토록 한 것은 병의 근무 태만 때문이지 병의 형벌 남용 등의 비리 때문은 아니다. 형벌을 남용한 것은 병이 아니라 을이다. 또한 정조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최종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니라 갑이 확보한 문서에 대한 확인을 토대로 판단하였다.

17. [출제의도] 지문의 단어와 동음이의 관계의 단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강화(強化)'는 문맥상 '수준이나 정도를 더 높임.'이라는 의미이며, ①의 '강화(講和)'는 '싸우던 두 편이 싸움을 그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됨.'이라는 의미이므로 두 단어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18 ~ 21] 고전소설

➔ **연계 지문 : 작자 미상, 「윤지경전」(수능완성 148쪽)**

18. [출제의도] 작품의 핵심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경은 윤 공에게 '소자의 뜻'에 대해 밝히며, '불과 수년이 못 되어 대환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머지않아 박 씨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예측한 것이다. 또한 '박 씨를 노엽게 하여 정배를 자원함은 부자가 화를 면하고자 함'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자신이 박 씨를 자극하여 귀양을 가게 된 것이 부자에게 닥칠 재앙을 피하기 위한 계책임을 밝힌 것이다.

[오답풀이] ③ 윤 공은 임금과 박 씨를 자극하여 귀양을 가게 된 지경을 '크게 책망하'였으나 지경에게 '소자의 뜻'에 대해 듣고는 아들을 크게 칭찬하였다. 따라서 윤 공이 '소자의 뜻'을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 발생할 위험 때문에 지경을 책망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도 아니다.

19. [출제의도] 인물들의 발화에 담긴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경이 부마가 되었음에도 최 씨와의 관계를 이어 가다 왕의 노여움을 사 귀양을 가게 된 것을 고려할 때, ㉤은 자신이 부마가 된 지 칠 년 되었지만 왕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 죄를 얻어 귀양을 갔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 왕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① ㉠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지) 그 이유나 의도를 구체적으로 따져 묻고 싶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지경이 왜 자신을 '조광조'를 죽게 한 사건에 연루시키는지 도무지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그 일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방어하는 것이다. ② 지경은 '나와 겨루고자 하다가는 크게 당하실 것'이라고 말한 후, ㉡에서 그 근거로 '편지'와 '군사관'을 언급하고 있다. 문맥상 '편지'와 '군사관'은 박 씨의 죄상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증거와 증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경은 이를 언급하며 박 씨에게 당당한 태도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③ ㉢은 지경이 '옹주의 지아비'인 점을 참작해서 그의 처벌을 가중하지는 말아 달라는 내용이다. '옹주의 지아비'는 지경이 부마, 즉 임금의 사위임을 강조하기 위해 쓴 표현이다.

20. [출제의도] 작품의 특정 부분의 서술상 특징과 효과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는 음모가 발각되어 박 씨 일파가 처벌받기까지의 사건들이 속도감 있게 서술되고 있다. 이후 귀양 갔던 지경과 최 씨가 사면을 받고 지경과 왕의 갈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들은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A]에는 초월적 존재가 등장하지 않는다. 남사교는 이인(= 재주가 신통하고 비범한 사람.)일 뿐 용왕이나 신선 같은 초월적 존재라고 볼 수 없다. ⑤ [A]에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대로 서술되고 있을 뿐, 동시에 발생한 사건들을 병치하고 있지 않으며, 사건의 다각적 의미가 드러나고 있는 것도 아니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임금은 유배지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조정의 일을 시비하'는 지경을 괘씸히 여기며 그의 유배지를 '제주'로 옮기고자 했다. 이에 세자는 '당초에 (최 씨와 정혼한) 지경을 부마로 간택한 것이 잘못이오니 어찌 그에게 죄를 더하리까.'라고 말하며 임금을 만류하였다. 즉 세자는 지경의 처벌이 가중되는 것을 막은 것이지, 지경의 사면을 임금에게 청한 것이 아니다. 또한 박 씨가 임금에게 지경을 유배지에 '십 년이라도 버려두'도록 청하자 세자는 '서모(= 아버지의 첩.)의 말씀도 옳사오니 버려두소서.'라고 말하며 한 발짝 물러나 박 씨와의 충돌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세자가 박 씨와 첨예하게 대립했다고 볼 수도 없다.

[오답풀이] ③ '세자를 저주하는 글이 박 귀인과 그 아들 복성군 등의 글씨'라는 것에서, 왕위를 계승할 세자를 해하고 자신의 아들 복성군을 왕위에 앉히려는 박 씨의 음모를 짐작할 수 있다. ⑤ 임금 앞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불손함을 보인 죄로 귀양까지 가게 된 지경이 이후에는 '엎드려 사은하고 울며'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하게 되는 상황은, 군신 간의 갈등을 봉합함으로써 유교적 충 이념의 근간을 흔들지 않기 위한 설정이라 해석할 수 있다.

[22 ~ 27] 현대시 – 수필 통합

➔ **연계 지문 : 정희성, 「얼은 강을 건너며」(수능특강 96쪽)**

➔ **작가 연계 : 정지용, 「달」 | 이상, 「조춘점묘」(수능특강 31쪽, 수능완성 143쪽, 수능특강 228쪽)**

22. [출제의도] 시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비둘기는 무엇이 궁거워 구구 우느뇨'에서 의문형 진술을 사용하여, 달빛 가득한 마당의 정경 속에서 들려오는 비둘기 울음소리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인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나)는 '강이여 우리가 이룰 수 없어 /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에서 의문형 진술을 사용하여, 얼음을 깬 뒤 들리는 '청청한' 소리에 대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한 화자의 반응을 인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오답풀이] ② (나)의 '아희들'은 예스러운 표현으로 볼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나)보다는 (가)에서 예스러운 표현('넘치노나', '설키도다', '우느뇨' 등)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23. [출제의도] 시어와 시구의 의미와 기능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화자는 밤의 아름다운 정경에 대한 경탄을 일관되게 표출하고 있으므로, 밤의 정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이 변화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또한 2연의 '미욱한 잠'은 침상을 벗어나 마당으로 나서는 상황임을 드러내 주는 표현이고, 5연의 '곤한 잠'은 '숨소리 설키도다'와 결부되어 깊이 잠든 상태에서 내는 숨소리가 들릴 듯 고요한 달밤의 분위기를 나타내 주는 표현으로, 두 시구는 서로 대조를 이루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2연에서 '부르는 이'가 없는데도 '불려 나'간다는 것은 모순을 담은 역설적 표현으로서, 누가 부른 것이 아니지만 마치 정경의 정취가 자신을 부르기라도 한 것처럼 뜰에 나서게 된 화자의 내면을 인상적으로 드러내 준다. ④ 3연에서 달빛을 받은 마당의 정경의 아름다움을 전체적으로 나타낸 화자는, 4연에서부터 정경을 구성하는 개별적 사물들에 초점을 맞춰 정경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4연의 '흰 돌'은 달빛을 받아 희게 빛나는 시각적 감각 대상이고, 6연의 '오동나무 꽃'은 '못견디게 향그'러운 향기를 풍기는 후각적 감각 대상이다. 화자는 이처럼 여러 감각을 동원한 표현을 통해, 정경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상을 더욱 강화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4. [출제의도] 공간의 성격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달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는 '나의 마당'은 화자에게 정경의 아름다움으로 인한 충만감을 느끼게 해 주고 있다. (나)에서 세상에 공지가 없는 듯 느끼던 화자는 화분에 싹이 트는 걸 보고는, '천하에 공지라곤 요 분 안에 놓인 땅 한 군데밖에는 없다고 좋아'한다. 그러나 이내 글쓴이는 '두 다리를 뻗고 누워서 담배를 피우기에는 이 동글납작한 공지는 너무 좁다'라며 그곳이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지'는 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따라서 '분 안에 놓인 땅'은 화자에게 위안과 함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나의 마당'과 관련하여 화자가 상실감을 느끼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③ '분 안에 놓인 땅'은 화자가 기르는 '왜꽈리'가 싹 트는 화분 속의 땅이므로 화자와 자연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으나, '나의 마당' 역시 화자가 자연물과 교감을 나누는 공간이다.

2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화자는 '물'이 '겨울에 죽은 땅의 목청을 트고' '또한 이 땅의 풀잎에도 운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운다'는 생명력을 되살린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것이 문맥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나)에서 '운다'를 좌절로 인한 슬픔을 환기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운다'를 눈물의 심상과 관련지어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민중에 대한 연민과 더불어 이들의 생명력을 되살리고자 하는 마음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오답풀이] ⑤ (다)의 '얼음장'은 '덕수궁 연못' 위를 덮고 있는 것으로서, 글쓴이는 얼음으로 덮인 '덕수궁 연못'을 보며 '그러나 금리어들은 다 어디로 쫓겨 갔을까?' 하고 의문을 품는다. 이는 표면을 덮은 얼음으로 인해 '금리어'가 보이지 않아 그 생명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의 '얼음장'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교류가 차단된 상황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26. [출제의도] 시상의 흐름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화자는 얼음을 깨자 흐르는 물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두고, '강이여 우리가 이룰 수 없어/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라고 말한다. 이때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다는 것은, 흐르는 강이 얼음에 덮여 있어 그 얼음으로 인해 물소리가 차단되어 있었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남몰래'라는 표현에서 '소리'를 드러내 놓고 이룰 수 없이 억압되어 있는 시대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 한편 [B]에서 화자는 '물이 제 소리를 이룰 때'를 고대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때 '물이 제 소리를 이'룬다는 것은, 흐르는 강을 덮고 있던 얼음이 모두 깨어져 '청청한' 소리가 제대로 들리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제 소리'라는 표현에서 '얼음'으로 비유된 시대적 억압이 가신 뒤 '소리'가 마음껏 펼쳐지게 된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화자는 얼음을 깨고 있으며, 얼음을 '깰수록 청청한/소리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얼음이 깨질수록 소리가 더욱 선명해지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화자는 '강이여 우리가 이룰 수 없어/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라고 말하는데, 이를 통해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동안은 물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A]에서 화자는 '얼음'을 깸으로써 '청청한 소리'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한편 '얼음'을 깨는 것은 화자가 고대하는 상황과 결부된 행위이다. 따라서 [A]의 '얼음을 깬다'가 [B]의 '얼음을 깬다'로 이어지는 것은, 화자의 심화된 인식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지, 행위의 부정적 의미가 긍정적 의미로 전환되는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④ [A]에서 화자가 호명하는 '강'은 '우리'가 '소리'를 '이룰 수 없'는 현재의 상황과 결부된 것이지만, [B]의 '아희들'은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물이 제 소리를 이'루는 미래의 상황과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화자의 관심이 현재에서 과거로 옮겨졌다고 할 수는 없다.

2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보험 회사'의 '신축 용지', 즉 '보험 회사'가 건물을 세우기 위해 마련해 놓은 땅에 대한 설명으로, 잡초로 뒤덮인 땅도 단지 개발이 유예된 것일 뿐 결국은 개발되고 말 공간이므로 진정한 공지는 아니라는 글쓴이의 인식이 드러난 부분이다. 화려하던 건물이 잡초로 뒤덮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니며, 따라서 내실 없이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근대 문명의 속성에 대한 비판과 결부시키는 것도 무리가 있다.

[오답풀이] ① ㉠은 사람이 없이 텅 빈 '덕수궁 마당'을 보고 글쓴이가 한 생각이다. 글쓴이는 여기서 '땅'이 자연 상태 그대로 방치되는 것보다 인간에 의해 활용되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근대 문명이 공간을 자연 상태로 남겨 두지 않고 개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② ㉡은 '덕수궁'의 황량한 풍경을 표현한 대목인데, 글쓴이는 이러한 풍경을 근대적이고 도시적인 사물인 '캐러멜 싸개'가 흩날리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글쓴이의 도시적 감각을 엿볼 수 있다. (참고로 이 수필이 1936년에 발표된 작품임을 고려하면, '캐러멜 싸개'가 도시적 감각을 드러낸다는 설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캐러멜'은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근대 문명의 산물이었다.) ⑤ ㉤은 봄에 싹이 튼 '왜꽈리 분'을 공지로 여기던 글쓴이가 태도를 달리하여 한 진술인데, '두 다리를 뻗고 누워서 담배를 피우기에는' '너무 좁다'라고 한 것에서, 휴식의 공간으로서 충분치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근대 문명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세계는 이제 찾기 어렵다는 인식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28 ~ 31] 현대소설

➔ **작가 연계 : 최인호, 「무서운 복수」 (수능완성 146쪽)**

28.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서 '철로 도금한 로봇처럼' 보이는 '무술 경관들'은 '너희들 데모할 테면 해 봐라 하는 듯한 위협감을 은연중에 풍기'고 있었지만, '그들도 우리들이 이미 그러한 전시 효과로서의 위협에 떨어질 그런 순진성을 상실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으며, 그들의 모습에 우리는 '참으로 만만치 않은 적을 보았을 때와 같은 투지감으로 충만되고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무술 경관들'의 모습에 학생들이 위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② 지문에는 '곧 대대적인 시위 행위가 벌어질 것이라는' '귀에서 귀로 전해지는 소문'에 따라 학교 내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는 이미 상실되었'고, '우리는 강의 시간을 알리는 벨이 울려도 들어가지 않'은 채 '집단 수업 거부 같은 것을 강행하고 싶은 충동을 문득문득 느끼곤 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즉 시위에 대해 퍼져 나가는 소문이 학생들의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④ 지문에는 '굴다리 벽보판'의 '플래카드'를 보고 '우리의 가슴은 고동'쳤고 '아침 등교 걸음'은 '날뛰기 시작'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즉 플래카드는 투지에 찬 학생들의 마음을 격동시켰던 것이다.

29.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학교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무술 경관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이어서 그들의 원래 의도('위협감')에 대해 언급한 후 그것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효과나 심리('흥분에 날뛰게 하였다', '자만심', '투지감' 등)에 대한 서술로 이어지고 있다. 곧 타인들의 모습을 서술한 뒤 그들로 인해 촉발된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오답풀이] ① 서술자가 자신들(자기를 포함한 동료 집단)의 심리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므로 작중 세계를 관찰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다.

30. [출제의도] 특정 표현과 관련된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결코 뒤에서 적을 쏘아 죽이지 않는다는'으로 수식되고 있는 한편 뒤에 나오는 '프라이드'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곧 자신들에 대해 자긍심 내지 도취감을 느끼는 학생들의 내면을 환기하는 표현인 것이다. 한편 ㉡은 '날뛰기 시작하는' 모습을 수식하는 표현이므로 흥분되고 고양된 심리 상태를 환기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은 시위의 주제나 내용과 관련된 표현이 아니라 시위에 나서는 학생들의 기분 상태만 나타내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고민이 시대 현실과 맞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② ㉡은 시위를 앞둔 학생들의 흥분된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일 뿐이어서, 순간적 쾌락만 좇는 학생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3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우리'는 '저 곁에서 벌어지는 음모와 부정, 방화' 등을 '한눈에 알아보'면서도 단지 '교활해서 모른 척하고 있었'다고 했으므로, 이를 뒤늦게 깨달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우리'가 당대 현실을 부정한 것으로 바라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만, 그것을 타협할 수 없는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당대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세태를 영악하게 수용하는 청년 세대의 계산적인 모습을 그렸다는 <보기>의 설명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곧 대대적인 시위 행위가 벌어질 것이라는' 소문만으로 거리에서 스크럼을 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한바탕 북새통을 하고 싶은 욕망을 느끼는 것은, 군사 문화가 팽배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평소 억압적 사회에서 자유에 대한 욕구를 느껴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무술 경관들'에 대해 '적개심'을 떠올린다면 아마도 그들이 사회를 변혁하려는 자신들의 저항 행위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인데, 이 작품에서 '우리'가 '무술 경관들'을 단순히 '페어플레이' 상대로 여기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저항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시위를 한 바탕 축제처럼 여기고 있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작가는 사회를 변혁하려는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평소 억압되었던 정열을 분출하는 통로로 당시의 시위를 형상화하고 있다.

[32 ~ 34] 고전시가

➔ 연계 지문 : 작자 미상, 「어이 못 오던다 ~」(수능특강 53쪽)

➔ 작자 미상, 「상사별곡」

32.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성', '담', '집', '뒤주', '궤', '자물쇠'와 같은 사물들을 연쇄적으로 나열하면서 임이 오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성에서부터 자물쇠에 이르기까지 사물들의 연쇄는 이러한 가정적 상황이 현실에서 있을 리가 없음을 나타내면서, 이런 상황도 아닌데 '어이 그리 아니 오던다'라는 원망을 통해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애타는 심정을 표출하는 것이다. (나)에서 화자는 임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며 임에 대한 상사의 정을 드러내다가 '날 사랑하던 끝에 남 사랑하시는가', '산계야목 길을 들여 놓을 줄을 모르는가', '노류장화 꺾어 쥐고 춘색으로 다니는가'와 같은 물음을 나열하며 임의 변심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산계야목'에 길을 들여 (그것을) '놓을 줄을 모르'고 있다거나 '노류장화'를 '꺾어 쥐고' 봄빛으로 다닌다는 것은 모두 임이 기생에 빠져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오답풀이] ② (가)에 열거된 '성', '담', '집' 등의 사물은 임이 화자에게 오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된 장애물이라 할 수 있으나, 화자가 이러한 사물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화자의 원망의 대상은 '한 달이 서른 날'인데도 '하루'도 오지 않는 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나)의 경우 화자가 임의 변심을 우려하며 그 대상으로 떠올리는 '남', '산계야목', '노류장화'가 임과의 재회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상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으나, 화자가 이들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33. [출제의도] 시구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일월 무정 절로 가니'는 임에게서 소식이 오지 않는데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을, '옥안운빈 공로'는 임의 소식을 기다리며 화자의 젊음이 헛되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가 늙어가는 임의 모습을 한탄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③ ㉢에서 가까운 거리를 뜻하는 '지척'이 먼 거리를 뜻하는 '천 리'가 되었다는 것은 가깝던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치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물'은 '깊고 깊'은 것으로, '산'은 '높고 높'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에서, '물'과 '산'의 보편적 심상이 활용되고 있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근원 흘러 물이 되어', '사랑 모여 산이 되어'라는 문맥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서의 '물'과 '산'은 과거에 화자와 임 사이에 존재했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임과 화자 사이의 장애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35 ~ 37] 화법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85쪽

35.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발표자는 '올해가 십이지 중 어느 동물의 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것일까요?', '이건 무슨 그림일까요?', '여러분은 호랑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등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36. [출제의도] 발표에 나타난 시각 자료의 활용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발표자는 ㉠을 보여 주며 '단원 김홍도가 그린 「송하맹호도」로, 형형한 눈빛의 호랑이가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린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화면 1]을 ㉠에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37. [출제의도] 발표 후 청중의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을 보고 청중의 질문을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발표에서 '이와 같은 민화에서 호랑이는 관리를 상징하고 까치는 백성을 대표했다고 합니다.'라고 언급하였으므로, 민화에 등장하는 까치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묻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38 ~ 42] 화법 - 작문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04쪽

38. [출제의도]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학생 1'은 '학생 2'에게 다음 주까지 해야 하는 글쓰기 과제의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묻고 있을 뿐이다. 과제 수행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② '학생 2'는 과거 '학생 1'과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 쓰레기로 불쾌했던 경험을 환기하며 '학생 1'로부터 관련 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③ '학생 1'의 발화에 앞서 '학생 2'는 시청의 관리가 참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학생 1'은 '학생 2'에게 문제의 원인이 시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④ '학생 1'은 '학생 2'의 의견을 듣고 '학생 2'의 의견도 맞기는 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원인이 공유 자전거를 함부로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⑤ '학생 2'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자신의 생각을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밝히고 있다.

39.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맥락에서의 발화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 1'은 '학생 2'만 괜찮다면 같은 주제로 글을 쓰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지를 '학생 2'에게 묻고 있다. 이는 상대에게 동의를 구한 것으로, '학생 2'가 '학생 1'의 발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어서 '학생 1'은 글쓰기의 자료를 공유하고 글이 완성되면 검토 의견도 나누자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40. [출제의도] 대화의 내용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글에 반영된 양상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학생 1'은 공유 자전거의 고장이나 쓰레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함부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면서 공유 자전거 이용자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 내용은 (나)의 3문단에 문제의 심각성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41. [출제의도]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두 글을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는 예상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의 글이지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글이 아니다. 게다가 (다)에서 설정한 예상 독자는 다수가 아닌 시청을 대표하는 시장이다.

42. [출제의도] 글이 수정된 이유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수정 전 내용인 <보기>와 수정 후 내용인 ⓐ를 비교해 보면 <보기>의 둘째 문장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해당 문장이 우리 시의 공유 자전거 문제 해결이라는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43 ~ 45] 작문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13쪽

43. [출제의도] 초고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초고의 1문단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확대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44. [출제의도] 조언을 반영하여 초고에 추가할 문장을 작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폐기물이 고급 재생 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이라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의 효과'를 언급하면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자'라고 학생들에게 분리배출의 실천을 청유하고 있는 ②가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2문단에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투명 페트병이 다른 페트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어서 그것만을 선별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다. ㄱ과 ㄷ의 자료를 활용하여 투명 페트병 자체의 부위에 따라 특성이 다른 플라스틱이 사용되기 때문에 투명 페트병을 선별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내용을 보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35 ~ 39] 언어

35. [출제의도] 어근과 어간, 접사와 어미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180쪽

'꽃답다'는 단어의 형성과 관련해서 보면, 어근 '꽃'과 접사 '-답다'가 결합한 단어이다. 또한 용언이므로 어간과 어미를 지니고 있다. 어간은 활용할 때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꽃답-'이 이에 해당한다. '-다'는 어미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반짝이다'는 '반짝이고, 반짝이며, 반짝이니까'와 같이 활용한다. 이에 따라 '반짝이-'는 어간이고, '-다'는 어미임을 알 수 있다. '-이다'는 접사에 해당한다. ③ '익히다'의 어간은 '익히-'로, '-히-'는 접사이지만 어간에 포함된다. ④ '엿보다'는 접사 '엿-'에 어근 '보-'가 결합한 단어이다. 어간은 '엿보-'이므로 어근과 어간의 형태는 동일하지 않다.

36. [출제의도] 명사 파생 접미사와 명사형 어미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74쪽

㉠의 '깨달음'은 관형어 '부처의'의 수식을 받고, 조사 '으로'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의 '앎'도 관형어 '단편적인'의 수식을 받고, 조사 '에'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의 '걷기'는 조사 '는'과 결합하여 문장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이를 통해 ㉠, ㉡, ㉢의 밑줄 친 단어들이 모두 명사임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⑤ ㉤의 '겨루기'는 '고하를'에 대해 서술성을 지니고 있다. ㉥의 '던짐으로써'는 '우스갯소리를'에 대해 서술성을 지니고 있다.

37. [출제의도] 사이시옷의 발음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국어에서는 사이시옷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갯짓'은 [고개찓]을 원칙으로 하되, [고갣찓]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고개찓]으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된 발음이 아니다.

[오답풀이] ③ '베갯잇'은 [베갠닏]으로 발음해야한다. ④ '빨랫돌'은 [빨래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38. [출제의도] 겹문장의 문장 성분 생략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208쪽

ⓓ는 '그가 아침에 눈을 뜨다'와 '11시가 넘어 있었다'가 연결 어미로 이어진 겹문장이다. 앞 절의 주어는 '그가'이고, 뒤 절의 주어는 '11시가'이다. ⓓ에 주어가 생략된 절은 없다.

[오답풀이] ① ⓐ에는 '집 안이 화려하다'가 부사절로 안기면서 주어인 '집 안이'가 생략되었다. ② ⓑ에는 '옷에 얼룩이 생기다'가 관형사절로 안기면서 부사어인 '옷에'가 생략되었다. ③ '그가 그녀를 보다'가 관형사절로 안기면서 목적어인 '그녀를'이 생략되었다. ⑤ 앞 절과 뒤 절에서 부사어 '교회에'가 공통되므로 뒤 절의 부사어가 생략되었다.

39. [출제의도] 다의어의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94쪽

㉠의 '목'은 '척추동물의 머리와 몸통을 잇는 잘록한 부분.'을 뜻한다. ㉡의 '목'은 중심적 의미에서 확장된 것으로, '목을 통해 나오는 소리.'를 뜻한다.

[오답풀이] ② ㉠의 '코'는 '콧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액체.'를 가리키는 주변적 의미에 해당하고, ㉡의 '코'는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을 가리키는 중심적 의미에 해당한다. ⑤ ㉠과 ㉡에 쓰인 '손' 모두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을 가리키는 중심적 의미에 해당한다.

[40 ~ 43] 매체 - 언어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94쪽

40.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인터넷 신문 기사의 정보 전달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기사에서는 '○○장터 월간 순 이용자 수'와 '○○장터 연간 거래액 추이'에 대한 시각 자료를 나란히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 수용자는 ○○장터를 이용하는 사람과 ○○장터 관련 거래 금액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수용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자료가 아니며, 이러한 시각 자료를 통해 수용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중고 거래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41. [출제의도] 인터넷 신문 기사를 읽은 독자의 수용 태도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독자 3은 '○○장터를 이용할 때의 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명이 없어 아쉽'다고 언급하였고, 독자 5는 '○○장터에서 어떤 물품들이 많이 거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루어 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볼 때 독자 3과 5는 모두 ○○장터에서 거래되는 물건에 관해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충분한지 점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독자 1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② 독자 4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 독자 2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에 쓰인 언어적 표현의 기능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명사 '자신'은 문맥상 '○○장터' 앱의 이용자를 이르기 위해 사용된 말이다. 앞에서 언급한 '지자체'를 다시 가리키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다.

43. [출제의도] 휴대 전화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기사의 설명에 따르면, ○○장터 앱의 '판매하기' 메뉴(ⓑ)를 누르면 사진과 설명, 금액을 입력하여 판매하고 싶은 물건을 등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이미지와 문자 언어를 활용한 복합 양식적인 매체 자료의 생산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4 ~ 45] 매체

44. [출제의도] 블로그에 나타난 표현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85쪽

'1. 항생제의 개념', '2. 항생제 내성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 '3. 항생제 내성을 줄이는 방법'과 같이 항생제와 관련한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을 소제목을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45. [출제의도] 블로그를 바탕으로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51쪽

(가)에서 제시한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의 차이를, 상반된 배경 음악 두 곡을 사용하여 나타낸 부분을 (나)에서 찾을 수 없다.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에 관한 내용은 #4에서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되었을 뿐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